

“김장의 계절, 한돈이 함께 합니다!”

오는 11월 14일까지 김장캠페인 신청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손세희, 이하 한돈자조금)가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아 오는 10월 27일부터 ‘2025 김장, 한계 없는 능력 한돈과 함께!’ 캠페인을 전개 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김장 나눔 캠페인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한돈자조금의 ESG 경영 철학에서 비롯된 사업이다.

이 캠페인은 김장을 준비하는 사회복지단체 및 비영리단체에 수육용 한돈을 후원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김장 문화를 보존하고 지역사회 및 취약 계층을 돕고자 마련됐다.

신청 기간은 금일부터 오는 11월 14일(금)까지이며, 신청 대상

은 ▲장애인, 아동 등 복지대상자가 10인 이상 상시 거주하는 사회 복지시설 ▲소외계층 나눔을 위해 김장 행사를 진행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한돈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는 한돈닷컴에서 지정된 양식(구글폼)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기관에는 행사 목적 및 인원수에 따라 김장 김치와 가장 잘 어울리는 부드러운 수육용 한돈(1인당 250g)을 11월 17일(월)부터 12월 5일(금)까지 순차적으로 전달된다. 한돈자조금의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300개 기관 또는 단체, 1.5만여 명이다.



▲공식 포스터(한돈자조금 제공)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사라져가는 김장 문화 보존에 힘쓰시는 시설 종사자, 생활자, 자원봉사자분들이 김치와 잘 어울리는 맛있는 한돈을 드시며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 김장 지원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한돈자조금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돈자조금은 지난 2022년부터 김장 지원사업을 통해 김장 문화 보존 및 소외계층 지원에 힘써오고 있다. 지난해에 열린 ‘2024 김장, 한돈과 함께’ 김장 캠페인은 총 316개 기관을 선정, 수육용 한돈 앞다리살 3,808kg을 지원했다. 김장 캠페인 행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친 지역사회에 작은 희망과 위로를 건네는 동시에, 김장철 한돈 수육이 전하는 따뜻한 정이 국산 돼지 한돈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검역본부, 가성우역 유전자 진단키트 국내 최초 상용화

가성우역 바이러스 유전자 진단키트 제조 허가 취득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인 가성우역의 국내 유입을 대비하여 신속한 정밀 진단을 위한 유전자 감별진단 기술을 (주)메디안디노스틱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국내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밝혔다.

가성우역은 염소, 면양 등에서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가축 전염병으로, 이 질병에 걸리면 고

열, 콧물·눈곱, 침흘림(구내염), 기침(폐렴), 설사(위장염)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대부분 폐사한다. 아직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몽골 등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이러한 가성우역의 국내 유입을 대비하여 가축전염병 진단키트의 제조 경험이 풍부한 (주)메디안디노스틱과 공동 연구를 진행해

2023년 말 가성우역 유전자 감별 정밀진단 키트를 개발했다.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가축 전염병이기에 ‘시제품 임상 효능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바이러스를 도입하고 임상실험을 진행함으로써 급된 10월에 유전자 진단키트 제조 허가를 취득했다.

기존에 해외에서 쓰는 진단키트는 가성우역 4가지 유형 중 한 유형이라도 있는 경우 양성으로 인지하여 가성우역으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어떤 유형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국내 최초로 개발한 키트는 가성우역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은 동일하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IV형 유전자를 추가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성우역 바이러스가 국내에 발생할 경우 이 키트를 사용하여 야외바이러스 검역과 백신접종을 구분할 수 있어, 살처분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정부는 국내에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2024년 말 가성우역 긴급행동지침을 제정하였고, 가축방역관 및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관리 및 예방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까지 동시 진행한다.

올해 9월까지 전국 107개소 축협 동물병원을 통해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사육 농가인 전업축산농가 대상으로 2,678만두 분량의 구제역 백신을 공급을 완료했다.

가축질병 발생 시에는 신속한 초동대응을 목적으로 전국 30개소 비상공급 비축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독 물품이 필요한 축산농가에 소독약, 생석회 등을 긴급지원하는 역할로 올해는 총 2억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강태영 기자
ktya0712@daum.net

축산 인공지능 기술 상용화 ‘민관 협력 강화’



▲농진청 제공

산업계 의견 청취·기술 고도화 논의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강민구 부장은 10월 27일 광주광역시에 있는 스마트 축산 기업 인트폴로우(주)를 방문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축산 기술의 산업계 협력 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농가 확산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축산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상용화와 현장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민관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통해 돼지의 행동 영상과 발성음을 분석해 사료

섭취, 활동량, 기침 등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모니터링)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인트폴로우(주)와 산업계 협력 연구를 진행해 기술의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핵심 알고리즘 기술 이전과 현장 맞춤형 기술 고도화 및 내구성 강한 상용화 장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양측은 올해 안에 기술 고도화와 장치 개발을 마무리하고, 향후 농가 실증 연구 및 보급 단계로의 진입을 목표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강 부장은 “축산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은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라며, “앞으로도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스마트 축산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etimes.com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지원, 밀원식물 씨앗 기부 행사 개최

꿀 등급제 활성화 위한 상생 협력 추진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정진형)은 27일 경기 양주시 소재 양봉장에서 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지회장 김선희)와 함께 양봉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밀원식물 식재 및 씨앗 기부 행사를 개최했다.

최근, 이상 기후 등으로 꿀벌의 먹이원이 되는 밀원식물의 면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벌꿀 생산량이 줄어 양봉농가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지원은 이번 행사에서 밀원식물(바이텍스)을 식재하고 해바라기와 양귀비 등 밀원식물 씨앗을 양봉 농가에 배포하여 꿀벌 먹이원 확대에 힘을 보탬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지원과 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양봉 산업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꿀 등급제도 활성화를 위한 협의와 홍보 활동을 함께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양주시청

송진영 축산과장은 “양주시는 지역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양봉 농가에 양질의 밀원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양봉협회 김선희 경기도지회장은 “양봉 산업과 꿀벌을 지키기 위한 뜻깊은 행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농가 스스로 꿀벌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양봉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지원 정진형 지원장은 “앞으로도 밀원식물 씨앗 기부와 식재 행사를 통해 꿀벌과 사람 모두에게 이로운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며, “또한, 꿀 등급제가 활성화되어 국내 산 천원 벌꿀이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산업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etimes.com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지원 정진형 지원장(좌측 두번째)과 양봉 농가가 함께 밀원식물을 심고 있다.

도매시장 거래,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경매·입찰
품목별로 정해진 시간에 공개적·경쟁적 거래를 통하여 수급시장을 반영한 가격에 낙찰



정가매매·수의매매
출하자와 구매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조건(가격, 물량 등)을 기초로 도매시장법인(경매사)이 거래를 주관



전자거래(상·물 분리거래)
도매시장법인이 운영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면 물건을 산지에서 구매처로 직송



예약거래
도매시장법인과 상의하여 미리 예약거래 (3일, 7일, 한달, 시즌별 등)